

# 도내 첫 안과병원 승급... 국내 대표 도약 첫걸음

전주 온누리안과병원(대표원장 문수정/안과 전문의)은 9월 3일부터 정부 승인을 통해 안과병원으로 승급한다고 3일 밝혔다.

수술 중심의 단일 안과로는 호남 최대 규모이며 전북도 첫 사례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 입원시설을 갖춰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의료기관이다. 원내 시설과 의료품질 등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승격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대학병원급 안과 진료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돼 그동안 중앙 의료기관에서 소외됐던 지역주민들에게 희소식이다.

온누리안과병원은 작년 6월,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약 6,010㎡ 규모로 호남 최대 안과병원을 준공했다. 30병상 8병실을 보유해 외래환자는 물론 입원환자들도 전문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술중심 안과 의료에 맞게 각 층에는 클린룸을 비롯해 안온캠, 라식센터, 외래진료실, 수술실, 입원실 등 첨단 시설을 갖췄다.

특히 전 수술실을 무균 청정 클린룸으로 만들어 최상의 수술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술실 내 최적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헤파 필터, 양압수술실, 환온환습실비 등을 도입했다. 이로써 수술 중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온누리안과병원에는 전북대외대 각막 전공 교수를 역임한 정영택 원장을 비롯해 문

## 전주 온누리안과병원

**2005년 개원 이후 안은행 운영  
각막이식·시력교정 등 수행  
임상·연구 집중하며 기술 축적  
국내외 봉사·사회공헌도 나서**

수정, 최현태, 양영훈, 문준형 안과전문의와 임혜린 마취통증전문의, 정지영 진단검사전문의 등 7명의 전문 의료진이 포진해 있다.

안과 최고난도 수술인 각막이식수술과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스마일라식,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등 다양한 안과 수술을 집도한다. 개인 안과로는 유일하게 안온캠을 운영하며 400건 이상 각막이식술을 진행했다.

또한, 20년 이상 쌓인 각막 이식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술기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도 했다. 스마일라식 최소절개법과 전용 수술기구 레미(LEMI, Low Energy Micro Incision)는 각각 국내 특허를 획득했으며 국제 특허도 출원 중이다.

이외에도 단일공 백내장 수술, 각막보존 난시교정 특수기법 등을 개발했다. 세계적 안과 학술지 JRS(Journal of Refractive surgery, 안과 논



전주 온누리안과병원 전경.

문 인용지수 1위), 코니아(Cornea Journal), BMC(BioMed Central Ophthalmology) 등 SCI급 포함 논문 62편과 국내 최초로 미국안과학회(AAO)에서 스마일라식 난시교정 병합수술의 임상결과를 발표해 국내외 의학계에서 인정받은 바 있다.

국내외를 넘나들며 봉사와 사회공헌도 꾸준히 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490여명 넘는 소방관, 경찰관에게 스마일라식 등 시력교정수술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스리랑카 의료봉사를 통해 560여명의 백내장 환자를 치료했다. '세상에 빛을 전해 온누리를 밝힌다'는 온누리안과병원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다. 온누리안과병원 설립자 정영택 원장(안과전문의)은 "이번 병원승급은 개원 후 13년간 온누리안과를 아끼고 성원해주신 지역사회의 열원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수술 중심의 한국대표 100년 안과병원의 비전을 가지고 전북지역 최초 안과전문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효철 기자

- ▶ 온누리안과병원 연혁 및 수상실적 ◀
- 1999. 09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2005. 09 온누리안과의원 설립
  - 2005. 11 안온캠 개설
  - 2006. 04 KBS 119상 봉사상
  - 2009. 12 온누리안과 신축 이전
  - 2014. 12 소방관 무료수술 공로 국민추천 대통령 표창
  - 2016. 10 각막이식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2017. 11 세계 3대 인명사전 후즈후(Who's who) 등재

## 덕진구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전주시 덕진구가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9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할 수 있고 의견제출 대상자는 '18년 1월 1일 ~ 6월 30일 분 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중 열람자에게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이다.

덕진구청 민원봉사실(063-270-6444)에 의견제출서를 받고 접수된 의견제출서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한 후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조정·공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송효철 기자



## 스마트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과제 발표 결실 손은미 전주시 주무관 정보통신연찬회 최우수상

전주시 손은미 주무관이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무주에서 열린 '전라북도 정보통신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3일 전주시 기획조정국에 따르면 손 주무관은 공간정보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행정 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최신 공간정보시스템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 건물·지적정보조회·항공사진조회 기능 중심의 공간정보시스템을 부동산종합공부와 세울터뿐 만 아니라 더 많은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행정, 지방세, 도로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손 주무관은 전주시 스마트 공간정보시스템구축을 주제로 연구과제 발표를 하여 전문가 서면평가를 통해 전라북도내 14개 시·군 중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오는 10월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전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됐다. /송효철 기자



'함께사는 세상, 희망 프로젝트'

전주시와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지구 전주지역은 3일 전주시지원봉사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이재관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지구총재, 결연클럽 회장 및 동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2019년도 친선친주 행복드림 결연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드림페스티벌' 오늘 문 활짝

전북문화관광재단, 8일까지 근대역사박물관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전북도와 군산시가 주최하는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드림페스티벌'을 4일부터 8일까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진행하고 있다. 3일 밝혔다.

이번 집중상설공연 '드림페스티벌'은 군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5일간 저녁 8시에 시작한다. 첫날 개막공연으로 타악연주 동남풍의 여는 마당(사물놀이)과 군산시민 오케스트라의 '군산! 하나되어, 희망을 노래하다!'를 시작으로, 5일 타악

## 동반자살하려다 홀로 살아남은 30대 실형

전주지법, 자살방조 등 혐의 1년6월... 숨진 사람 외제자 훑쳐 달아나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30대가 죽은 사람의 외제 승용차 등을 훑쳐 달아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는 자살방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전북 전주 시 덕진구 아중저수지에서 B씨와 함께 저수지에 투신한 뒤 혼자 헤엄쳐 나와 B씨의 BMW 승용차와 노트북 등을 훑쳐 달아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B씨와 함께 전주와 완주 등에 있는 저수지를 찾다니며 함께 목숨을 끊을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허위적거러인 B씨를 남겨둔 채 데크 기둥을 붙잡고 스스로 헤엄쳐 나와 목숨을 건졌다.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공판 B씨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빛이 멀어서 극단적인 선택

을 시도했다'며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나만 우연히 살아남은 것일 뿐, B씨를 살해하거나 그의 죽음을 방조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재물을 훑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물을 은닉까지 해 최질이 좋지 않다"며 "나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누워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망의 메시지와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별별마당 상설공연은 군산 수송공원, 은파호수공원 물빛공연장,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9~10월까지 주말마다 계속되며 거리 퍼레이드공연 '치사대감 남시오'도 매주 토요일에 진포해양테마공원 위봉원에서 근대역사박물관 앞 광장까지 진행되고, 시정버스킹 공연도 공설시장 창문에서 계속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문화관광재단 상설공연추진단(063-230-74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 사별한 아내 이야기에 '격분' 직장동료 살해하려한 60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보(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정읍시 수성동 자신의 집에서 직장동료 A(52)씨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5차례 찔러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올해 아내와 사별했는데, 그만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A가 자꾸 이야기를 꺼내 왔기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 전주인재육성재단

2학기 장학생 선발

지역우수인재 42명  
1인당 200만원까지

전주인재육성재단(이사장 김승수 전주시장·윤여운)은 2018년 2학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요강을 재단홈페이지([www.jinje.kr](http://www.jinje.kr))와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http://www.jonju.go.kr))에 게시하고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학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대상인원은 도내 대학생 25명과 도의 대학생 17명 등 총 42명으로, 장학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당 2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9월 3일)현재 전주시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 중 전북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자격을 취득한 대학생이다. 성적요건은 직전학기(1학기) 평균성적이 B+ 이상이여야 한다.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50점과 생활정도 50점에 자원봉사 실적시간을 가산점으로 최대 1.5점까지 범위 내에서 반영하며,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전주시청 민원실 맞은편 전주빌딩 7층에 위치한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063-281-5082)에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노동당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 생활현황이 어려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지역우수인재 장학생선발사업 외에도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문탐구 의욕과 애학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푸드, 서울 서대문구 어린이 등 급식으로 제공

전주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인 전주푸드가 서울 서대문구 어린이와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급식으로 제공됐다.

전주시는 서울 서대문구청과 체결한 '1대1 농산생 공공급식' 협약에 따라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 식재료와 가공식품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인 전주푸드를 서대문구에 공급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푸드는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 70곳과 복지시설 3곳 등 총 73개소 2,400명의 급식을 만드는데 활용된다.

시는 서대문구 전주푸드 공공급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전주푸드를 생산하는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이가, 공공급식 수요처뿐 아니라 향유 직거래 장터와 학교급식 영역까지 전주푸드 공급이 확대되고, 도·농간 교류 및 농촌체험 활동도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대문구 공공급식에 오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전주푸드 자체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생산자들이 공급하는 식재료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사까지 거쳐 출하되는 다량종소량생산 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는 향후 전주푸드 식재료의 직거래 공급을 늘리는데 힘쓰고, 식생활 교육과 도농간 교류·체험, 소비자와 생산자 간 연대도 강화해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